

조선시대 가구 주문자와 생산자의 상호관계성

서 석 민¹, 김 명 태^{†,2}

¹안동과학대학교 건축인테리어과, ²공주대학교 조형디자인학부

The Relationship between Furniture Purchasers and Producers in the Joseon Period

Seok Min Seo¹, Myeong Tae Kim^{†,2}

¹Department of Interior Architecture, Andong Science College, Andong 760-709, Korea

²Department of Formative Design, Kongju National University, Goungju 314-701, Korea

Abstract: This study is a review on the relationship between furniture purchasers and producers in the Joseon period. Understanding the relationships in our traditional spirit and the Joseon furniture that reflects a aesthetic sense is a meaningful work. Joseon was to build an ideal country which put emphasis on the order and harmony through Theory of 'Yeak' as the confucianism nation. Human aesthetics, which emphasis on the spiritual value by confirmity to nature and focus on the relaxed, deficient personality rather than completeness was established as the central formative consciousness of the Joseon Dynasty. The nature of things in the confucian scholar prior to the representations of things is expressed in the form of master craftsman's skill and soul. Formative consciousness of the confucian scholar is to realize ideals by communciation and interchange with master craftsman's soul in the form of the Joseon furniture. The beauty of restraint and brevity in the Joseon Dynasty furniture includes meanings and procedures of art work. It implies an orderer's purpose of production and a producer's products. Understanding the spirit of times in the production becomes the cornerstone capable of getting closer to the furniture ultimate proper function. These problems have a very close relationship with the problems of modern people's commuication. We expect an even higher growth of the furniture by achieving more improved communication based on the consumer's great insight and the producer's passion.

Keywords: *furniture pirchaser, confucian scholar, master, formative consciousness, communciation and interchange*

1. 서 론

1.1. 배경 및 목적

선조들의 사회제도적 상황과 시대사상에 비추어진 예술가치의 계승은 현시대의 발전에 있어 중요한 사

료가 된다. 이는 인간의 삶 자체가 사회제도적 환경과 시대사상의 연계성을 지닌 유기적 상호관계를 형성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예라 할 수 있다.

조선의 가구 특히 사랑방가구는 시대의 사회배경과 정신을 근원으로 미적 조형성을 나타내며 신분제에 따른 봉건적 사회제도의 가치관의 영향으로 공간의 성격에 따라 그 내용을 달리하는 독특한 조형양식의미를 형성하였다.

2015년 6월 15일 접수; 2015년 7월 24일 수정; 2015년 7월 25일 게재확정

[†] 교신저자 : 김 명 태 (mtkim@kongju.ac.kr)

현재까지 전해져오는 조선가구의 우수성과 조형적 아름다움의 가치는 분명 서양의 문화 정서와 다른 한국 고유의 정서를 담은 그릇일 것이다.

한 민족의 가구를 지칭함에 있어 민족의 고유한 정서와 사상이 존재함을 상기하며 동양의 전통사상과 미의식이 반영된 조선 가구의 주문자와 생산자의 상호관계를 이해함은 의미 있는 연구일 것이다.

가구 주문자와 생산자의 관계성을 탐색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만 그 의미와 가치 또한 적지 않다고 본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는 조선시대 가구의 형성에 따른 가구 주문자 즉 선비와 생산자인 장인의 상호연계성과 소통의 가치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선비의 내면적 조형의식과 장인의 숨겨진 삶의 문화로 계승함으로써 현대 가구디자인에 있어서의 주문자와 제작자의 문화인식이 새롭게 이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1.2. 연구 방법 및 범위

본 논문에서는 조선중기의 가구 주문자와 생산자의 상호연계성과 가치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우리 전통가구가 지닌 조형의식과 소통의 가치를 삶의 문화로 계승함에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한 연구에 있어 제1장 조선중기 유교문화의 시대사상을 배경으로 한 문헌들을 토대로 선비사상과 장인정신의 연계성에 대한 자료를 기본도구로 하여 진행하였다.

제2장의 선행연구로 조선가구의 형성에 반영된 유통구조를 제도적 측면과 사회적 측면으로 고찰하며 이를 기반으로 한 조선중기의 가구 주문자와 생산자의 상호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제3장에서는 본 논문의 핵심 주제인 조선중기의 생산자와 주문자의 상호 관계성에 중점을 두었다. 앞에서 얻은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조선가구에 내재된 선비 사상과 장인정신에 따른 형의 구현과 소통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문인문화의 성장이념과 사랑방 가구를 중심으로 한 조선가구의 형성에 따른 상호 연계성에 주안점을 두어 진행하고자 한다.

2. 조선시대의 사상적 배경

2.1. 유교문화의 성립과 실생활

조선시대 유교문화의 성립은 우주와 인간심성중심의 성리학을 시작으로 형식과 규범의 예학(禮學)에 중점을 두어 발전하게 되었으며, 이는 다시 실학(實學)으로 이어졌다. 이러한 유교문화는 조선의 지배적 이념으로 생활 전반에 작용함으로써 새로운 기준과 시대정신으로 일상생활의 모든 사고와 행동의 지배적 영향을 미쳤으며 유교국가(儒敎國家)로서 예악론(禮樂論)을 통해 질서와 조화를 중점으로 한 이상적인 국가를 건설하고자 했던 유교이념은 불교를 대신하여 그 시대 문화 발전의 원동력이 되었다.

‘인의예악(仁義禮樂)’의 생활규범 개념을 받아들인 조선시대 선비들의 사상적 기틀이 되었으며, 한국의 안방과 사랑방의 공간형성을 나누는 기준이 되었다. 유교문화는 개인보다는 가족을 기본 단위로 한 사회구성체 속에서 대인관계를 상하질서로 규범화한 윤리관을 내세워 개인의 권리와 자유의 주장보다는 자기 수양과 겸손에서 찾으려는 전통을 확립하였다(권 2001).

유가사상이 국가의 정치 및 학문의 이념과 규범으로 자리 잡으면서 사회적 활동의 중심에 있었던 남성들의 생활공간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조선후기 선비들이 유가사상을 기반으로 한 학문예의 정진과 정계의 진출을 평생의 목표로 삼았던 것으로 볼 때, 그들이 생활하였던 사랑방 공간에는 민간신앙의 성격이 강하게 나타난 도가사상이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학문과 정치적 이념으로서 지배적이었던 유가사상의 이념과 가치관이 남성의 공간에 절대적인 영향을 주었음을 알 수 있다(김 2011).

조선의 문화의식의 형성에 있어 중추역할의 초석은 선비, 양반, 사대부들을 중심으로 형성되었으며 또 한 학문과 도덕을 근간으로 고도의 품격과 절제, 금욕을 중시하는 유교적 생활규범 아래 미술품에서의 인위성과 화려함, 장식성을 최대한 배제시키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자연과 소통하며 순응함으로써 합일점을 찾으려는 유교의 자연사상 이념이 실생활에 내재된 것으로 자연으로의 회귀본능(回歸本能)을 표현하고 있다(Fig.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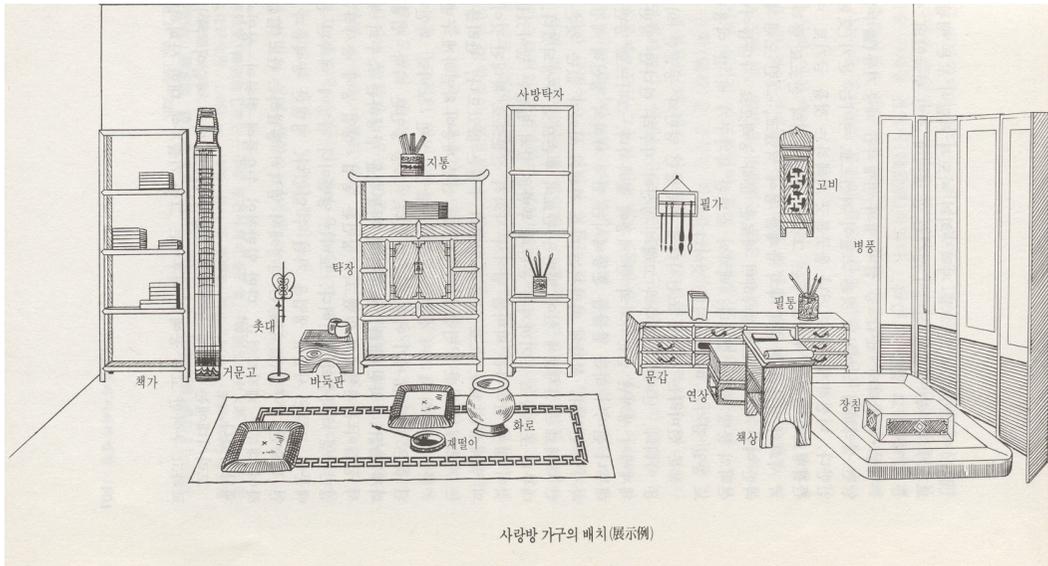


Fig. 1. Guest-room furniture layout - Youlhwadang (2001).

2.1. 선비정신과 장인정신

선비는 유교와 그 경전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갖고 당시 현안을 바라보았고 정치가로서 비전을 제시하면서 관료로서 그러한 미래상을 실현하기 위해 매진했던 계층이다.

조선의 선비들은 우리 민족고유의 원융사상(圓融思想)에 힘입어 불교와도 끊임없는 교류를 유지하였다. 조선은 고려시대의 불교문화를 대신해서 유학 중심의 문화가 주류를 이루었지만 불교의 문화적 유산과 전통적 토착문화와도 함께 융화를 이루면서 유학자들은 독특한 선비문화를 형성하였다.

조선의 공예인은 공상천노(工商賤奴)에 속하는 하층민이었으므로 상층계급의 전횡이었던 국사에 참여할 수 없었다. 게다가 신분의 벽 때문에 사회적 진출의 통로도 막혀 있었다. 조선의 장인은 비천한 신분으로 인해 직·간접으로 많은 차별을 받았고 억울함을 숙명으로 안고 살았다.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에는 양반과 천인이 서로 섞이어서 벼슬을 하면 사회가 혼란해지고 사회의 귀천이 없어지기 때문에 천인들이 공(功)이 있을 때에는 그 공을 녹(祿)으로 주고 벼슬은 주지 말라는 내용의 상소가 발견된다. 이것은 사대부 양반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 명분을 예의지국으로 하고, 유교의 기본질서를 확립하

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공상천노의 사회진출은 세종 때에 가장 많이 논란이 되었는데, 시대가 경과할수록 더 엄격해지고 공예인들의 신분도 더욱 더 제재를 받았다(서 2014).

선비는 인(仁), 의(義), 예(禮), 지(智)를 실천하는 삶의 형태를 자아수련을 통하여 행동양식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는 일상생활에 있어서의 세속적 쾌락과 행위를 엄격하게 절제함으로써 정신적 가치와 청빈사상을 추구하고 있다. 실내공간의 꾸밈과 가구에 있어서의 외장의 간결한 표현에 선비의 사상적 배경을 간접적으로 표현함으로써 선비의 삶의 의식을 적용시키고 있다. 이러한 시대상황에서 장인이 지닌 기질과 솜씨, 즉 혼은 천직으로서의 직업정신을 보여주고 있다. 장인이 지닌 전문적 기술과 직업관은 조선의 사공농상(土工農商)에 대한 업종과 직제를 나누어 자신의 능력을 개척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과정에서 비롯되었으며 마음과 손이 하나됨으로써 심수상응(心手相應)의 기예에 도달할 수 있었다(Table 1).

3. 조선시대의 제도적 현실

조선시대는 유가사상을 정치이념(政治理念)으로 극히 소수의 양반계층이 나라를 움직이던 사회였다. 양

Table 1. Chosun Dynasty Furniture and Four Side Table Characteristics - Aesthetic Values Represented in *SABANGTAKJA* of the Joseon Period (2014)

범 위	주 요 내 용	비 고
조선시대 가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연미를 살리기 위한 장식, 색채, 광택 억제 및 정교한 결구방식을 사용하였다.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align-items: center;"> <div style="text-align: center;">  <p>삼방연귀장부맞춤</p>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p>화통물림</p>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p>연귀사개맞춤</p> </div>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구내적의 미와 비례, 선과 목리의 소박한 아름다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작과정의 인간공학 비례 의뢰인의 주문규격과 목수개인의 안목으로 결정 공인된 규격제품이 아니라 작품별 규격이 달라 개별성이 확대됨. 규격의 오차 범위는 1 : 1~1 : 1.39 내에서 결정되며 조선인의 신체조건 및 의복의 치수, 책의 크기 또한 이에 준하여 결정됨. 자연소재와의 유기적 관계 각재와 판재를 고루 활용한 시각적 안정감 형성 자연소재의 규격을 존중한 가구 규모의 범위 설정 개폐공간 설정을 통한 독특한 공간비례미 형성
사방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낙동법(나무 표면을 인두로 태움)을 이용하여 색과 광택을 억제시킴으로써 자연적인 나뭇결을 강조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align-items: center;"> <div style="text-align: center;"> <p>1단계</p>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p>2단계</p>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p>3단계</p>  </div>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방탁자의 표면 목리에 있어 무늬결과 곧은결을 자유롭게 활용함으로써 유연성과 강직성이 표현됨.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div style="width: 30%;"> <p>문판 (널결)</p>  </div> <div style="width: 65%;"> <p>물푸레나, 느티나무 등의 결이 아름다운 부분을 선택하여 가구의 넓은 면을 장식함으로써 목리의 아름다움을 활용한다.</p> </div> </div>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margin-top: 10px;"> <div style="width: 30%;"> <p>기둥 (곧은결)</p>  </div> <div style="width: 65%;"> <p>가구의 하중을 많이 받는 곳에 곧은결의 소나무 등으로 단단한 심재 부분을 사용함으로써 구조적 힘의 안배를 엄두하여 균형감을 둔다.</p> </div> </div>

만들은 과학과 기술개발에 관심을 가지려 하지 않았고, 왕실과 귀족이 필요로 하는 제품은 경공장(京工匠)을 두어 제작케 하거나 지방의 진상품으로 충당하였다. 이러한 조선초기의 시대적 상황은 국민들로 하여금 생활용품을 자급자족하게 만들었다.

조선초기의 수공업은 철두철미하게 봉건 지배층의 어용적인 것에 불과하였다. 그들 수공업의 장인(匠人)들은 봉건 신분적 관인(官人)체제 아래 묶여 버렸기 때문에 지배층의 수요와 공급에 맞춰서 물건을 생산했다. 이 같은 제도의 정비는 태조 때의 『경제육전(經

濟六典)』을 세조초년에 다시 성전하기를 착수하여 성종 2년부터 시행된 『경국육전』의 규정에 의거한 것이다(이 2001).

이후 권위 위주의 정선된 목가구와는 달리 보다 실용적인 사용자 중심의 목가구가 생겨나게 되는 계기가 되었으며 관공장(官工匠)이라는 신분적 체계에 의해서 자연발생적으로 생겨나게 되었다.

조선초기의 수공업은 지배층의 수요에 따라 물건을 제작하여 공급하였으며 소목장을 직접 불러다가 가구제작을 의뢰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주문자의



Fig. 2. Master craftsman to make small portable dining table - Seomundang (1986).

기호와 의식을 포함한 장인의 솜씨에 의해 가구가 제작되었다.

조선시대 목가구를 제작하는 장인은 목수나 소목장이라 하였으며, 목장이라고도 하였다(광1년).

소목장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각 관사의 장인을 잡역에 동원하지 못하도록 하였다(세16년). 이러한 시대의 흐름 속에 장인들의 명암은 극명하게 변화되었다. 17세기 이후 아취와 절제된 격조 중심의 청완 풍조(淸玩風潮)가 유행하면서 기술을 천기로 보고 인공의 느낌을 기피하는 청공의식을 가지있게 만드는 절용은 공예의 아름다움을 사치의 경계로 보고 공예의 기술을 위축시키는 현실에 기술에 폭넓은 기술발전의 계기는 관장의 수준 높은 기술 배양에 있었다. 더불어 가구제작에 실용주의의 이념을 반영시킴으로써 주문자의 문화수준을 비롯한 목가구의 발전에 기여하는 계기를 마련했다(Fig. 2).

4. 조선시대 생산자와 주문자의 상호관계성

4.1. 의식의 반영과 형의 표출

조선의 가구는 그 시대의 가치관과 문화정서가 깃든 귀중한 자산이며 조선의 가구가 선비를 중심으로 하는 시대정신과 장인들의 책임의식이 상응하여 제작으로 이어졌음을 상기시키고 있다.

“조선가구의 무작위성과 적재적소 주의의 이면에는 고도의 정신적 척도가 작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선비의 조형안목과 장인의 제작기술을 통해 만들어진 조선시대 목가구는 순수하고 대범한 외관으로 인해 무작위적인 느낌을 주며 조형의 구조나 실용의 장들은 기물의 용도에 가장 충실하게 사용함으로써

자연스러운 멋을 잃지 않으며 구석진 공정을 비롯한 보이지 않는 구조에 이르기까지 섬세한 모습을 지니고 있다.”(최 1967) 이러한 현상은 정신적 세계를 중시하고, 완벽함보다는 부족하나 여유 있는 인간과 자연의 인격을 중시하는 ‘인간미의 미학’에 그 근본을 두고 있음을 의미한다.

자연에 순응하며 정신적 가치를 중시하며 완벽함보다는 부족하나 여유있는 인격을 중시하는 ‘인간의 미학’은 조선시대의 중심 조형의식으로 자리매김 하였다. 이러한 인간미학의 반영이 무작위성에 대한 대중적 심리적 반응일지는 모르나, 비단 무작위성이 조선시대의 조형의식에 대하여 큰 범위에 함축되어 있는 독특한 인간미의 미학을 전적으로 대변하는 것은 아니다. 조선사회를 이루고 있는 계급사회에서의 지배층과 피지배층 간의 상호간의 의식에 대한 차이는 ‘인간의 미학’이란 포괄적 범위 내의 또 다른 의식의 생성으로 인한 각 계층의 의식이 산재하였음을 알 수 있다.

선비의식의 반영은 자아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 자신의 사유 구조 안에 우주의 근본인 태허(太虛)가 자리할 수 있는 여유와 공간을 자기 안에 남겨두려 하였다. 이것이 문인문화에서 선비가 추구했던 청빈 사상이며 이로서 자신을 미루어 남을 헤아릴 줄 아는 선비정신을 실천하려고 하였다. 사랑방의 공간과 가구형식을 빌어 장인의 솜씨를 덧붙임으로 의식과 형을 반영하고 있다.

조선초기의 시대적 상황은 국민들로 하여금 생활 용품을 자급자족(自給自足)하게 만들었다. 조선초기의 가구는 국가에 귀속되어 있던 관공장(官工匠)에 의해 주로 상용화 되었으나 중기 이후 조선시대 목가구는 선비의 의지를 비롯한 장인의 개인적 역량과 조형감각, 솜씨에 의하여 규격과 형태, 실용성 등이 다양하게 나타나게 되었다.

조선가구의 절제미와 간결미에는 작업의 과정과 결과의 의미를 담고 있다 이는 주문자의 제작의도와 생산자의 결과물에 대한 내용을 함축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주문자이자 사용자인 선비의 내면적 정신의 가치와 안목, 의도가 생산자에 이어지는 과정이다. 이와 더불어 간결미가 지닌 제작요소의 적지 않은 부분이 장인의 혼과 손끝을 거쳐 관조(觀照)의 형상을 갖는다.



Fig. 3. Market from the Joseon Dynasty - Seomundang (1986).

4.2. 소통과 형의 실현

고전미의 정수로 칭하는 사랑방 가구는 결코 어느 한 사람의 발명품이 아니다. 문인들이 자신의 독서처에 두고 쓸 필수적인 가구를 일정한 기준과 안목으로 주문하고, 장인이 이에 빼어난 솜씨로 부응한 결과가 바로 사랑탁자와 같은 사랑방 가구의 명품들이다(최 2006).

프랑스의 예술학자 타인넨(H. Taine)은 “하나의 예술품을 이해할 때 종족, 환경, 시대적인 것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아야 한다.”고 하였듯이, 조선의 목가구 또한 그 시대의 시대정신과 사회 문화적 영향을 받고 있다. 자연적 환경을 기반으로 한 시대정신 즉, 유교 문화의 기반 위에 성립한 선비의 사고와 정서는 조선 가구의 실현에 있어 현대 주문자의 역할을 대변하고 있으며 이러한 선비의 안목은 장인의 솜씨와 융화하고 교류하며 그들만의 미의식을 담아내고 있다. 그러한 미적 소통과 융화는 조선가구 발전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그 중심에 있어서의 시장의 영향력은 적지 않았다(Fig. 3).

조선은 기술을 천하게 여기는 천기사상(賤技思想)의 영향으로 천민인 제작자는 유교 사상의 근본에서 떨어져 있었으며, 양반과 선비가 지향하며 요구하는 형태의 조형미를 그들의 손재주만으로 완성시켰다. 이는 사상적 배경에 기초한 양반과 선비의 조형 이념에 의해 제작이 이루어졌음을 거듭 시사하고 있는 것이다. 장식적 아름다움을 표현하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을 최대한 억제하고 재구성시킴으로서, 가구제작에 있어서의 장식적 기교를 탈피하고 있다. 이는 선비의

조형감과 장인의 기술적 역량을 서로 교감하고 이해 시킴으로서 구조적 조형미의 완성에 이르는 원동력을 지닌다. 건설한 구조미와 절제미를 발휘함으로써 주문자가 지닌 정서와 기호를 장인의 혼을 통하여 가구의 형상으로 표출시키고 있다.

정신세계의 존중에 있어 작품의 완성은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조선의 가구가 지니는 완성의 의미는 목가구의 기교적인 요소를 한층 더 발휘할 수 있는 과정선상에서 마무리를 짓는다.

보탬 것 없는 완벽성을 표현하기 보다는 더 이상 제외할 것이 없는 자연을 담은 그릇으로서 남겨두려 하고 있다. 이러한 조선 장인의 제작정신에 대하여 일본의 공예가 야나기 무네요시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인간의 기술을 통하여 자연을 살리는 것이다. 그러므로 가공이기는 하나 자연의 본능보다는 훨씬 더 자연의 의지를 분명하게 충족시키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자연물보다도 더욱 자연의 아름다움이 나타난다. 여기서는 가공이 단순한 작위(作爲)와는 다르다. 작위(作爲)라면 자연은 죽어버린다. 사람이 만드는 것은 그것이 올바른 경우에는 세나 벌이 하는 것보다도 더욱 자연을 살리고 있다. 왜냐하면 자연의 아름다움이 여기서 한층 더 응집되기 때문이다. 조선의 물건을 보면 이 응집 방식이 순수하기 때문에 잘못 응집시키는 일이 없는 것이다. 조선의 것에는 자연을 쫓아 더욱 자연에 작용한다.”(야 1994) 이러한 정신은 자연성에 기인한 탈기교의 심성으로서 대상의 본성을 충분히 파악하려는 합리적인 창조를 근간으로 하고 있으며 이러한 창조의 행위는 궁극적으로 마음과 물(物)이 지닌 합(合)의 개념을 지향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목가구 제작에 있어 문화의 차이는 완성에 따른 가치부여의 측면에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우리가 사고하는 완성의 의미에 있어 그 이상의 기교와 장식은 무의미하다. 이러한 완성에 갖는 의미는 조선시대 선비가 지닌 의식과 무관하지 않음을 시사한다.

형을 취함에 앞서 선비가 지닌 사유의 본질은 장인의 솜씨와 혼을 통하여 형상에 융화되어 비로소 형으로 표출되었다. ‘완물상지’라 쓸데없는 물건에 마음을 빼앗기면 본 뜻을 상한다는 장인의 정신과 ‘한 점 속기 없는 경지’의 선비의 문인문화의 안목은 제작자와

주문자의 상호의식의 관계에 있어 소통과 교류에 의한 이상을 조선시대 가구의 형으로 실현시키고 있다.

5. 결 론

본 연구는 조선시대의 가구 주문자와 생산자의 소통에 의한 근원과 이로 인한 현대의 소통방안을 제시하려 하였다.

조선가구의 배경에는 자연에 순응함으로써 정신적 가치를 중시하는 선비의 인간미학적 조형의식이 그 중심에 있었음을 확인하였다.

기물의 제작에 앞서 선비가 지닌 질서와 조화를 중심으로 한 사유의 본질을 작품에 이입 시키고 있다. 이러한 과정은 장인의 숨씨와 혼을 통하여 비로소 형으로 완성시키고 있으며 이는 어느 한 사람의 발명품이 아닌 상호소통에 의한 시대의 명품으로 이어지고 있다. 주문자의 제작의도와 생산자의 결과물에 대한 내용을 함축시킴으로써 결과적으로 주문자이자 사용자인 선비의 내면적 정신의 가치와 안목, 의도가 생산자에 이어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사회계층의 시대상황을 초월한 선비와 장인의 교류는 작품의 완성에 있어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이는 장인의 기술을 통하여 자연을 살리는 것으로 단순한 작위(作爲)와는 사뭇 다르다.

‘완물상지’(玩物喪志)라 쓸데없는 물건에 마음을 빼앗기면 본뜻을 잃을 수 있다는 장인의 정신과 ‘한 점 속기 없는 경지’인 선비의 안목은 제작자와 주문자 상호의식의 이상적 교류와 소통을 실현시키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현대인의 소통의 문제와 무관하지 않으며 소비자의 높은 안목과 제작자가 지닌 열정의 무게는 우리사회에 있어 크게 요구되는 선인의 지혜로 비추어진다.

참 고 문 헌

- 광해군일기(중초본). 권14. 광해 1년 3월 10일.
 권영걸. 2001. 韓·中·日 전통공간의 조형정신과 방법에 관한 비교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49쪽.
 김은정. 2011. 조선후기 사랑방 목가구의 표현과 의미에 관한 기호학적 분석.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37-40쪽.
 세종실록. 권64. 세종 16년 6월 11일.
 서석민. 2014. 조선시대 사방탁자에 표현된 조형관. 공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6-17쪽.
 야나기 무네요시, 이길진 역. 1994. 공예의 길. 신구문화사. 20쪽.
 이종석. 2001. 韓國의 木工藝. 열화당. 19, 86, 275쪽.
 최공호. 2006. 한국공예 감식의 변천 : 문방청완의 향유와 眼法. 한국미술사교육학회 20(1): 365-395.
 최순우. 1967. 조선시대의 목공품. 공간사. 65쪽.